

개교 95주년

Samuel H. Moffett 박사

초청 강 연 회

"HAS CHRISTIANITY FAILED IN ASIA?"



❖ 일시 : 1996. 5. 14 (화)

❖ 장소 : 본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

장로회신학대학교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16

<https://archive.org/details/haschristianityf1723moff>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실패했는가?

사무엘 마펏트 박사¹⁾

제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충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거짓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시아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아시아의 다른 부분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 관하여 저술한 유명한 두 학자들은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저자는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도인 역사학자 파니카르(K. M. Panikkar)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아시아를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²⁾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저자인 하바드의 재간꾼 하비 콕스(Harvey Cox)는 몇 년 후인 1995년에 남한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저술을 할 때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콕스는 파니카르가 묘사한 것처럼 아시아의 기독교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특히 오순절교단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생동력있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동남 아시아, 중국, 몽고와 시베리아에서 강력한 주동력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 . . [남한의] 인구 절반 가까이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³⁾

누가 맞을까요, 파니카르일까요 콕스일까요?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죽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아시아의 미래에 주연 배우로서 대륙 전체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갈까요?

저는 이 논문에서 파니카르와 콕스 둘 다 틀리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아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은 아시아의 다양성만을 과장할 때 한해서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저자의 주장들은 부분적으로 맞을뿐더러 내 생각에는 아시아가 기독교에 지향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콕스가 비관적인 파니카르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해서도 낙관적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계에서 아시아가 가장 큰 정치적인 도전이며 가장 큰 경제적인 도전이자 가장 큰 기독교적인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아시아는 단순히 다른 하나의 대륙이 아니라 초(超)대륙입니다(supercontinent). 아시아는 너무나도 광대해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이 대륙을 동·동남·남·서아시아 넷으로 나눕니다. 이것에 비하면 유럽은 아시아 본토에서 서쪽으로 튀어나온 갑(岬: 돌출부)에 불과해서, 대서양에 삼켜져 버립니다.

아시아는 또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대륙입니다. 세계인구의 60%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북미는 세계인구의 6%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종교적입니다. 세계 5대 종교인 힌두교, 불교, 유교, 회교, 그리고 기독교가 이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서양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근원지가 서양이 아닌 아시아라는 것을 상기시킬때에 가끔 놀라곤 합니다.⁴⁾

1 나채운 교수님을 축하하고자 기념집에 약간이나마 공헌하게 된 것은 저의 특권입니다.

2 K. M. Panikkar, *Asia and western Dominance*, (London: Allen & Unwin, 1953), 297.

3 Harvey Cox, *Fire From Heaven*, (Reading, Mass.: Addison Wesley, 1995), 220. 그러나 한국 장로교인들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건대, 콕스는 한국기독교의 능력을 “오순절파”와 동일시한데서 실수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아시아적인 것이라면, 당연하는 질문은 “왜 아시아는 인구의 비율로 따져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저조하게 기독교화되었는가?”하는 것입니다. 「국제선교조사지」(*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논문에 발표된 1995년의 통계에 의하면, 다섯 개의 주요 대륙 안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비율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⁵⁾

라틴 아메리카	89%
북미	78%
유럽과 구소련	66%
아프리카	48%
아시아 (중동을포함)	7%

아시아에서는 왜 비율이 그렇게 낮은 것일까요? 이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한 대답은 아시아의 다른 대종교들의 대항 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대답은 아시아 내에서의 기독교 역사 자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양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는데로 기독교를 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사상들과 행동들은 서양이 줄 수 있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3명의 동양사람들은 기독교의 확장에 대해 저항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파니카르가 옳았습니까?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실패하였을까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동아시아를 예로 삼아서 반대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동아시아에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실수가 있었다라도 기독교의 미래는 희망에 가득 차 있고 앞으로 수백년동안 대륙전체의 종교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세나라로 구성됩니다. 이 세 나라는 북미보다 더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륙전체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 실패가 이제는 성공으로 보여지는 곳

장구한 동아시아의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중국의 문을 다섯 번 열었고, 중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다섯 번 문을 팽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섯 개의 시기를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차 네스토리우스파 (635-907). 알로펜(Alopen)의 중국 도착
- ② 2차 네스토리우스파, 1차 로마 가톨릭 (1200-1368). Sorkaktani - William of Rubruck, Marco Polo, Kublai Khan, John of Montecorvino.
- ③ 2차 로마 가톨릭 (1552-1773). 예수회.
- ④ 1차 개신교, 3차 로마 가톨릭 (1807-1949).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Hung Hsiu-Ch'uan) CIM.

4 Samuel Hugh Moffett, *A History of Cristianity in Asia, vol. I. Beginnings to 1500*.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2), xiii-xv.

5 숫자들은 “교인들” 즉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를 지칭한다. 이 자료는 *International B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Jan. 1995.과 *Wrld Amanac*, 1995.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⑤ 공산주의 혁명(1949....)

파니카르는 문들이 닫혀진 때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이 닫혀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또 열고 다시 들어가곤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1951년에 중국의 문이 제 개인에게 닫혀졌을 때에 저는 파니카르와 동의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실패하지 않았는가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신교 제1기라고 칭한 시기(1807-1949)(기독교가 아시아에서 놀랍게 발전한 150년의 기간)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파괴되는 그 시점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발전의 시기는 중국으로 파송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태평양 건너로 데려다 준 배주인이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리슨씨,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중국 왕국에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모리슨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가 틀렸습니까? 7년이 지나도록 그는 한 명의 회심자에 대해서도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개신교의 중국 선교에서 최초의 25년 동안에 겨우 10명의 중국인 개신교 신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체 중국인 3억명 중에서 10명! 모리슨이 이룩한 것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⁶⁾ 파니카르가 말했듯이 아시아를 개종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창기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0년 동안 중국 기독교는 두 번 나라전체를 얻기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 차례의 군사혁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1850년의 태평천국의 난(The Taiping Rebellion)
2. 1912년의 민족주의 혁명(The nationalist revolution)
3. 1949년의 공산주의 혁명(The communist revolution)

첫 군사적 혁명인 태평천국의 난(Taiping Rebellion)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1851년에 부패된 청나라(Ch'ing dynasty)에 대항하여 토착인의 폭동(native revolt)이 일어나서 만주족 황제를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은 반역자들의 주동자인 형 슈추환(Hung Hsu-Ch'uan = 홍수전)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당시 중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모리슨이 번역한 성경의 일부분을 접하고서 개종한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가 반정도만 개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진지하긴 했지만, 전혀 정통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웅졸하고 융통성없는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국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공언하였고(긍정적), 우상을 모두 파괴하라고 시켰습니다(판단을 유보함). 그는 자신의 성경번역본을 출판하였습니다(위험한 일). 그의 군대에 소속된 모든 군인들은 주일 예배를 필수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빠지면 매를 맞았습니다. 주일을 두번씩 연달아 빠질 경우엔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비기독교적인 훈련이었지만 군대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가 남쪽 수도 난징을 점령했을 때에는 서양 열강들까지도 형 형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과연 아시아가 1500년이나 기다려 왔던 콘스탄틴인가? 드디어 중국인 기독교 황제가 나온 것인가? 한 보고서는 형 형제에게 3천만명의 중국인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명령한대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독교”는 성경적 진리와 중국적 신화와 황제가 되고 싶

6 Elizabeth Morrison, *Mmoires of the Life and Lbours of Robert Morrison* (London: 1839), 1:136, 4089f., 212 f.

은 야심을 모두 혼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에는 소위 서양 기독교 열강이 반기독교 왕조에 기독교인 장군을 보내서, 스스로 기독교적 봉기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은 실패하였습니다.⁷⁾

이제 약 60년을 뛰어넘어갑시다. 또 하나의 혁명인 1912년의 중국 혁명은 옛 만주족 제국을 종결시키고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혁명도 기독교와 강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개신교들로부터 교육받고 1884년에 세례받은 급진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얏센(Sun Yat-Sen)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열정적인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태평천국의 난과 달리, 이 민족주의적 혁명은 성공하였습니다. 제국은 무너졌고 신생 중화민국은 그 중국인 기독교 청년(Sun Yat-Sen)을 첫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⁸⁾

다음 50년 동안은 “기독교 메시지에 대하여 전례없이 개방된 정신의 시기였으며, 그 메신저들 즉 선교사들에 대해 우호적인 시대였다”고 라투렛은 말합니다.⁹⁾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기에 한동안은 8천여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 가톨릭 공동체(Chinese Catholic community)는 개신교인들의 두배였습니다. 다음 대통령 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장개석이란 이름을 가진 그 장군은 감리교신자였습니다. 기독교 대학도 꽃피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도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명록”(Who’s Who in China)에서 중국의 지적이고 정치적인 엘리트의 25퍼센트가 기독교인임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기독교 통치자로 인정받은 장개석 장군이 두 번째 콘스탄티누스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저는 그점을 재빨리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1947년에 중국에 도착하였는데, 시기상으로 가장 열악한 때였습니다. 중국은 장개석의 민족주의자들과 모택동의 공산주의자들 간의 내란에 휩쓸렸습니다. 내가 “누가 이길까요?”하고 묻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1년반 후에 공산주의자들은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대학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나머지를 취하기 위하여 전진하였습니다. 1951년에 나는 추방되었고 다른 선교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선교사들을 제거하면, 중국 교회는 말라죽을 것이오”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을 떠났을 때, 나는 그들의 말을 믿을 만큼 거의 절망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파니카르(Panikkar)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사멸할 참이었습니다. 1951년에 중국에는 30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200만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100만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추방된 후 얼마 안 있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니카르는 틀렸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난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아무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약 1천 5백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정에 의한 보다 개연성있는 수치는 4000만에서 6500만 사이일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45년 안에 300만에서 6500만으로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빠른 팽창입니다.

7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는 세권으로 된 Franz Michael, *The Taiping Rebellion*, (Seattle: 1966-1971)을 보시오.

8 선얏센의 기독교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는 Lyon Sharman, *Sun Yat-sen*, (New York: John Day, 1934)을 보시오. 특히 xvii, 418쪽을 참고.

9 K. S. Latourett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in China* (New York, 1929), 610.

그러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개신교회인 “三自교회”(Three-Self Church)와 “가정[처소]교회 운동”(House Church Movement)이라고 알려진 “지하” 교회들 간의 불화입니다. “삼자교회”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 권세에 복종하게 하라”는 성서적 권면을 선택하였습니다(롬13:1). 그리고 그 교회들은 혹독하게 제한받기는 하였지만, 개방적으로 남아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가정교회들”은 다른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하여야만 합니다”(행 5:29). 그리고 그들은 무신론적인 통치체제에 의하여 통치받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의 한편은 옳고 다른편은 그르다고 선불리 판단하기 전에 신중하십시오. “삼자교회”는 오랜 혁명 기간동안 중국 기독교의 가시적인 현존을 보존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감내하였고, 예배와 기도예의 신실성보다 정치사회적인 행동을 강조하려는 모험적 경향을 감수하였습니다. 교회의 다른 편은 지하로 들어가서 아직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개신교 운동의 가장 크고 가장 빠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도 중국의 교육받은 지도층의 결핍과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너무 덜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불일치를 치유하고자 양측에서는 훌륭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의 좌파는 가톨릭 애국 협회(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국과의 연대를 단절하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와 교황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들 중 우파는 박해와 투옥 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끈질기게 로마에 충성을 다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양측에서 모두 로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중국 가톨릭의 가톨릭 교회로서의 정당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일본: 성장하지 않은 교회(The Church That Didn't Grow)

일본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약간의 단락만을 할애하였지만, 일본의 경우는 동아시아 기독교 연구에 훨씬 더 엄격한 현실적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교회들의 범세계적 선교활동들의 성공에 관한) 과도한 기독교적 승리주의(triumphalism)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한 가지 통계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350여년 전인 17세기에 일본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는 2% 미만이고, 중국은 약 6%이며, 한국은 아마도 30%이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기독교 선교의 이야기는 더 명백한 두 승리담들(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긴 하였지만, 기독교역사가 항상 성공담만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세상적인 성공의 정의(definition)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17 세기에 중국제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일본제국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94년 일본은 중국을 이겼습니다. 중국의 육군이 징스칸의 시절로부터 내려온 몽고족 기마대와 함께 군기를 날리고 북을 울리면서 남쪽으로 요란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들은 아직도 활과 화살을 다루는 능력에 근거하여 선발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인 일본인들은 근대식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중의 거대한 육상전투는 평양 근처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때는 나의 부친[Samuel A. Moffet 선교사 = 역주]이 선교사로서 그곳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말을 타고 전쟁터를 지나가면서 수마일에 걸쳐 널려있는 중국 군인들의 시체를 헤아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총포가 갑옷을 누르는) 중세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

졌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작은 일본은 러일전쟁(1904-05)에서 러시아 제국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때에 나의 부친은 일본측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인 포로들을 보고서, 스스로 또 다른 시대의 종말(즉 서방의 아시아 지배가 종말을 맞은 시기)을 보고 있는 듯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제국주의 일본은 패배한 중국 제국과는 달리 (기독교의 고유한 종교적 토대들을 재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기독교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간주하였던) 20세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물결처럼 몰려드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서방 세계의 가장 큰 기독교 제국들 중의 하나를 아주 확실하게 물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의 기독교 선교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주장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30년 안에 증가하는 교만함과 함께, 자신이 넘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십자군을 감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동아시아를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는 대륙 전체를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도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대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불교와 혼합주의적으로 연대한 일본의 신도 외에는 더 이상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한국 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일본의 신사 참배(Shinto shrine worship) 즉 천황을 신성한 자로 숭배하게 하는 것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던 어떤 이들은 그들이 장개석 안에서 중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 자신의 천황-신인 히로히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위험스럽게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로마에 있었던 고대적인 황제숭배와 같은 의식들에 순응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한국: 성공담과 많은 문제점들

저의 마지막 예는 한국입니다. 기독교인 관찰자들이 대한민국을 묘사할 때면 승리주의자가 안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라를 떠났다가 최근에 방문한 한 사람은 거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감리교는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에서 시작하였지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는 영국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습니다. 장로교는 존 칼빈과 함께 주네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는 주네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습니다. 현대의 오순절 운동은 (미합중국의) 남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오순절 교회는 남캘리포니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독교를 묘사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기 위하여 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프린스톤에 살고 있던 저의 주변에는 정통적인(mainline) 미국 개신교의 현저한 감소의 징후가 보입니다. 그러나 제도용 콤파스로 프린스톤의 중심부에 한 점을 찍고 이 공동체 주위로 반경 70마일의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원 안에서 700개의 한국계-미국 교회들(Korean-American churches)을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그 700개의 교회들은 35년전에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기독교의 진보와 확장의 징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는 단지 1천8백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대륙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2억7천5백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100년동안에 1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속도는 동일한 기간동안 아시아의 회교도들의 숫적 증가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¹⁰⁾

10 1900년이래로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1천8백만명으로부터 2억7천5백만명 이상으로 1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회교도들은 1억7천만으로부터 6억8천8백만으로 4배 증가하였습니다. 동일 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장은 분명합니다. 개신교인들은 가톨릭교인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인들이 감리교인들, 오순절교인들 및 침례교인들을 합친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였습니다. 제 선께서 106년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남반부와 북반부를 통틀어서 한국 전역에서 기독교(개신교) 신자들이 250명 이하였고, 작은 교회가 둘 있었을 뿐입니다. 한 교회는 장로교였고, 다른 교회는 감리교였습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250명이었던 신자들은 오늘날 남한 안에서만도 거의 1천2백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2백5십만의 가톨릭 신자들과 50만명의 “주변적 분파”인 통일교를 제외한 수치입니다.¹¹⁾

그러면 무엇이 성장하게 하였습니까? 제가 아는 최선의 답변은 제 부친께서 60년전에 말씀하셨고 가끔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난 50년동안 우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머지를 행하셨습니다.”¹²⁾ 아마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답변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보통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성장한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비신학적 이유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대한 기독교 선교 사업들은 어떤 제국주의적·식민지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분노한 대상은 아시아의 식민주의자(일본)였지 서양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친구로서 입국하였지 착취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비신학적 이유는 한국의 종교적 문화적 유산이 무너지고 있는 때와 동일한 시기에 개신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정복되었을 때, 유교, 불교, 및 무속은 모두 스스로 실패한 것입니다. 옛 전통들의 실패는 그들에게 그들의 친구들인 선교사들이 가져온 새로운 신앙에 대한 소망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아마도 훨씬 더 유력한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초대 선교사들의 현명한 선교정책입니다. 소위 네비우스 방법(Nevius Method)은 프린스톤 신학교의 1850년대 졸업반의 한 졸업생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의 손아귀 안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비우스는 이런 구식 선교사역방법에 반대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던 그의 동료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습니다. “성령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심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고 중국 교회를 건설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구식 방법들은 너무나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90년에 그는 동일한 교훈을 한국 내의 개척 선교사들의 회합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경청하였고 그래서 그것은 한국기독교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로교 선교부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공식적인 선교정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선교사업이 100년 먼저 시작되었고, 감리교인들이 장로교인들과 동시에 선교를 시작하였음에도, 지금은 한국 장로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의 2배이며, 감리교인들의 5배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간에 힌두교인들은 2억에서 7억4천5백만명으로 3.6배 증가하였습니다. 불교도들은 1억으로부터 3억3천2백만명으로 3.3배 증가하였습니다.(*World Almanac*, 1995, p. 731, 및 *Catholic Encyclopedia*, 1910). 기독교인들의 성장은 모든 다른 아시아 종교들보다 앞질렀습니다.

11 Patrick Johnstone의 *Operation World, 1993*,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Harper Collins), 1993), 336 ff.에 나오는 통계를 보시오.

12 S. A. Moffett, in H. A. Rhodes, ed.,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eoul: YMCA Press, 1934), 36 ff.를 참고하십시오.

오늘날 “3자운동”(Three-Self Method)로 알려진¹³⁾ 네비우스 방법은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교회에 그것을 적용하였고, 외국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교회에 그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중국 YMCA로부터 빌려왔지만, 그것은 본래 중국 YMCA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서 빌려왔던 것입니다. 첫번째의 “自”(self)는 자치(self-government)였습니다. 즉 한국인 안수교역자가 나오자마자 교회를 한국인의 통제에 맡겨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해는 최초의 한국 신학교에서 최초의 졸업반이 나온 해입니다. 두번째 “自”(self)는 자급(self-support)이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전인 189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선교부는 한국인 목회자들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않으며 한국인 교회를 미국 달러로 건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회심자들에게 기독교의 청지기적 책임을 맡겼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이후로 “tithers”이 되었습니다.

성장의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인의 독창성(Korean initiative)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정책은 그것을 세 번째 “自”(self) 즉 自傳(self-propag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그것은 평신도-복음전도, 즉 남녀평신도에 의한 복음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내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인 평신도였던 서상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상륜은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들에 의해서 1876년에 회심하였고 거기에서 최초의 한국어 신약성서 번역을 도왔습니다. 그는 1893년에 약간의 복음서 사본들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자기 고향마을에서 조그마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해에야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상륙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의사였던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과 장로교 목사였던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와 감리교 목사였던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였습니다. 하지만 서상륜이 먼저였습니다.¹⁴⁾

급속한 성장을 설명해주는 다섯 번째 이유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기초 위에 확고하게 뿌리박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훈련에는 신학을 위한 성경공부, 개인적인 기독교의 영적 훈련, 기독교적 증거를 위한 열정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공부와 진도(outreach) 모두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기질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 유아기적부터 자기도취적이지도 않았고 이기적이지도 않았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outreaching). 그것은 복음주의적이었으며, 선교적이었고 또한 사회·정치적으로도 능동적이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장의 여섯 번째 이유는 기도입니다. 한국의 교회 생활의 현저한 특징은 새벽기도모임입니다. 그것[한국교회]은 아침 4, 5시에 기상하여 체력 단련이 아닌 영적 훈련인 기도를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장로교회는 회중들을 위하여 하루에 두 번씩 새벽기도모임을 가집니다. 4시30분에 있는 첫째 모임에는 5천명이 오고, 5시30분에 가지는 둘째 모임에도 다른 5천명이 또 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저는 별로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당신 교회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분은 “우리는 기도합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역사적으로 성경공부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을 한글 알파벳을 사용하는 평범한 통속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교 학자들에 의해서 엘리트 집안의 자제들에게만 가르쳐 주었던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신속

13 네비우스 방법은 또한 영국의 Henry Venn과 미국의 Rufus Anderson의 “삼자” 선교 전략(three-self mission strategies)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4 L.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Revised ed. (Seoul: Yonsei Univ. Press, 1971), 32, 54, 138 f.

하게 확립된) 요구조항들 중의 하나는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이 오늘날 미합중국보다 더 높은 비율의 식자층을 갖게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 장로교 선교사역의 핵심적인 특징들 중의 하나는 성경훈련반 제도(Bible Training Class System)였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네비우스 박사가 한국내 선교정책 형성에 기여한 또 다른 사상적 씨앗이었습니다. 이점은 한국 내에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의 직분자들 즉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양육시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부흥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부흥 가운데서 조직되었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이고 극적인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반도를 휩쓸면서 교회 성장 최초의 대형 집회들을 유발시켰으며, 또한 한국교회에 (존 웨슬레의 부흥집회들과 비교되었던) 신앙 부흥의 열정적 특성을 영구적으로 남겼습니다. 부흥의 주요한 수혜자들이 대개 장로교였음이 판명되었지만, 부흥은 또한 한국 기독교에 에큐메니칼 친교를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중의 어떤 분은 존 칼빈에게 돌아가고, 또 어떤 분은 존 웨슬리에게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1907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¹⁵⁾

그러나 한가지 이유를 더 첨가해야만 하겠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복음과 사회적 행동을 양극화하지 않았습니다. 양자가 모두 한국 기독교인들에겐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하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결코 영적으로 내세지향적이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박사는 한국에 최초의 근대적 병원을 개원하였고, 나중에 선교에서 외교로 옮겨 초대 주한 미국 공사(대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민족적인 문제나 질문도 기독교인의 주의와 관심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개척자들은 한국에 최초의 여자 학교들과 맹인 학교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언더우드(underwood)는 등유(kerosene)와 농기구들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금 후에는 그의 형제들의 새로운 생상품인 언더우드 타자기를 들여왔습니다. 마펏(Moffet)은 압록강에 관한 목재 면허(timber concession)를 개설하여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무역상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선교사업(missionary business)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역상들의 이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심자들에게 근대적인 기술과 사업방법을 가르쳐서, 서양 문명이 그들 안에서 휩쓸 때에 그들이 보다 동등한 입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독교인(감리교인)이었고, 현직 대통령은 장로교회 장로이며, 현재 여당 지도자는 로마 가톨릭 교인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한국교회 성장의 성공의 복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성장의 이유들 중에서 제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한국교회사 가운데서 힘겨운 사실들 중의 하나는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한 방법이 분열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는 60개 이상의 다른 장로교 교단들(denominations)이 존재합니다. 각 교단은 그 고유의 총회와 총회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상 어디에서 당신은 예수교(Jesus)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와 기독교(Christ)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가 나뉘어서 예수(파)가 그리스도(파)에게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노를 받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찬미하도록”(시편16:10)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할 때, 십년이 지나면 분열된 반쪽이 분열이 일어나기 전의 전체와 같은 크기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열들이 한국전쟁(1950-53)의 파괴와 사회적 혼란 후에 나타났

15 Smuel Hugh Moffet, *Christians of Korea*, 53 f.

는 사실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확신을 가지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약속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 회중들과 심지어는 민족교회들조차 오류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사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사라져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시아 교회사로부터 이끌어온 약간의 교훈들을 제안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저는 미리 일반법칙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목록을 열거하겠습니다. 즉 20세기 기독교의 미래는 주로 제3세계 교회들의 성장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미래의 대부분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역사로부터 다음의 7가지 교훈들을 얼마나 잘 배웠는가에 의하여 형성될 것입니다.

1. 만약 그들이 (민족적이건 외세적이건) 정치권력에 너무 오래 의지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2. 만약 그들이 자기 자신의 민족적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체감을 갖지 못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그 유산 속에서 필요한 때에 반문화적인 기독교의 증거를 선포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역시 실패할 것입니다.
3. 만약 그들이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교육받은 지도층을 배출해낼 수 없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4.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교훈을 사회적 연민과 통전성으로 정당화하지 못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5. 그러나 만약 그들이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에만 집중하고 기독교적 삶의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훈련들을 소홀히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6.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복음전도(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면, 실패할 것입니다.
7.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토대를 포기한다면 그들은 가장 비극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그 신학적 토대는 바로 아버지, 아들 및 성령의 삼위 안에 계신 한 하나님이며,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한 구원이며,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을 위한 성서의 명백한 권위입니다.

- 감사합니다 -

Samuel Hugh Moffett
Princeton, N.J. U.S.A. 1996.

Has Christianity Failed in Asia?

Samuel Hugh Moffett ¹

My subject is Christianity in Asia, but I was once warned that whoever dares to write about Asia has a problem. Any statement one makes about Asia is bound to be false. Asia is so vast and so varied that what you say about any one part is going to be false about another part. Let me give you an example: two eminent authors who write about Asia but come up with diametrically opposite conclusions. The first is a highly respected Indian historian, K. M. Panikkar. In a much quoted book (1953), he says flatly, "...the [Christian] attempt to convert Asia has failed."² Christianity has lost in Asia.

But the second author, Harvard's mercurial Harvey Cox, writing a few years later in 1995, comes back from a visit to South Korea with a completely different view. Instead of finding Christianity in Asia terminally ill, as Panikkar described it, Cox found Christianity so alive and crackling in Asia, particularly in Korea, and especially Pentecostalism, that he says, "...there is no reason why [it] could not eventually become a major force in all of southeast Asia, in China, and in Mongolia and Siberia." "...nearly half the populace [of South Korea] is churchd," he said.³

Which one is right, Panikkar or Cox? Is Christianity dead in Asia, or is it about to explode across the continent as a major actor in the continent's future?

My thesis will be that Panikkar and Cox are both wrong. "Anything you say about Asia is false"--that statement is true only as an exaggeration of Asia's diversity. For both authors are also partly right, and I think Cox who is optimistic about a Christian future in Asia, is more right than Panikkar the pessimist. I am not only optimistic about Christian missions; I am optimistic about Asia. I believe that Asia is the greatest political challenge, the greatest economic challenge, and the greatest Christian challenge in the world today.

Asia is not just another continent; it is a supercontinent.

¹ It is a privilege to have a share in honoring Professor Na Chae-Woon through a modest contribution to this festschrift. In somewhat different form this article will also be published elsewhere.

² K. M. Panikkar, Asia and Western Dominance, (London: Allen & Unwin, 1953, 297.

³ Harvey Cox, Fire From Heaven,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95), 220. Cox made a mistake, however, in identifying the strength of Christianity in Korea as "Pentecostal", given the overwhelming predominance of Presbyterians in that country.

Has Christianity Failed in Asia?

Samuel Hugh Moffett ¹

My subject is Christianity in Asia, but I was once warned that whoever dares to write about Asia has a problem. Any statement one makes about Asia is bound to be false. Asia is so vast and so varied that what you say about any one part is going to be false about another part. Let me give you an example: two eminent authors who write about Asia but come up with diametrically opposite conclusions. The first is a highly respected Indian historian, K. M. Panikkar. In a much quoted book (1953), he says flatly, "...the [Christian] attempt to convert Asia has failed."² Christianity has lost in Asia.

But the second author, Harvard's mercurial Harvey Cox, writing a few years later in 1995, comes back from a visit to South Korea with a completely different view. Instead of finding Christianity in Asia terminally ill, as Panikkar described it, Cox found Christianity so alive and crackling in Asia, particularly in Korea, and especially Pentecostalism, that he says, "...there is no reason why [it] could not eventually become a major force in all of southeast Asia, in China, and in Mongolia and Siberia." "...nearly half the populace [of South Korea] is churchd," he said.³

Which one is right, Panikkar or Cox? Is Christianity dead in Asia, or is it about to explode across the continent as a major actor in the continent's future?

My thesis will be that Panikkar and Cox are both wrong. "Anything you say about Asia is false"--that statement is true only as an exaggeration of Asia's diversity. For both authors are also partly right, and I think Cox who is optimistic about a Christian future in Asia, is more right than Panikkar the pessimist. I am not only optimistic about Christian missions; I am optimistic about Asia. I believe that Asia is the greatest political challenge, the greatest economic challenge, and the greatest Christian challenge in the world today.

Asia is not just another continent; it is a supercontinent.

¹ It is a privilege to have a share in honoring Professor Na Chae-Woon through a modest contribution to this festschrift. In somewhat different form this article will also be published elsewhere.

² K. M. Panikkar, Asia and Western Dominance, (London: Allen & Unwin, 1953, 297.

³ Harvey Cox, Fire From Heaven,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95), 220. Cox made a mistake, however, in identifying the strength of Christianity in Korea as "Pentecostal", given the overwhelming predominance of Presbyterians in that country.

It is so big that the United Nations divides it into four continents, Eastern, Southeastern, Southern, and Western Asia. Europe, by comparison is just a big promontory jutting off the Asiatic mainland to the West where it loses itself in the Atlantic Ocean. Asia is also by far the most populous continent in the world. It holds nearly 60 % of all the world's peoples. North America has only 6%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Asia is religious. It is the birthplace of the world's five largest religions: Hinduism, Buddhism, Confucianism, Islam and Christianity. Western Christians are sometimes startled to be reminded that Christianity is by birth Asian, not western.⁴

The question that must then be faced is, if Christianity is Asian, then why is Asia, in terms of percentage of population, the least Christian continent in the world? Statistics for 1995 in th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report the percentage of professing Christians in each of the five major continents as follows:⁵

LATIN AMERICA,	89%.
NORTH AMERICA,	78%
EUROPE & USSR,	66%
AFRICA	48%
<u>ASIA</u> (including Mideast)	7%

Why is the percentage so low in Asia? One answer credits this disparity to the power of the counter-claims of the other great Asian religions. Another answer blames it o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tself in Asia. Most Asians still look at Christianity as they have perceived it and find it wanting. They believe that their own inherited ways of thought and behavior are more than a match for anything they think of as "Western" has to offer. So 93 out of every 100 Asians have resisted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Was Panikkar right, then? Has Christianity failed in Asia?

But let me use Eastern Asia as my example to make a counter-claim. I will argue that despite its history, Christianity is expanding so fast in Eastern Asia that although it has made some mistakes, its future, far from hopeless, may change the religious history of the whole continent for the next hundred years.

The area consists essentially of just three countries--China, Korea and Japan. Those three occupy more land than North America, and contain more people than Africa and Latin America combined. And what is more significant, East Asia is becoming the

⁴ See Samuel Hugh Moffet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Vol. I, Beginnings to 1500,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92), xiii-xv.

⁵ Numbers refer to "affiliated" (i.e. total who claim to be Christians. (adapted from Int'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Jan. '95; and World Almanac, 1995).

leading edge of change, economically and culturally, of the whole continent. Let me use China as my first example.

China: where failure now looks like success.

Five times in the long history of Christianity in East Asia, Christians opened the door to China, and five times China slammed the door shut against them.⁶ Let me list the five periods of entry and rejection and reentry in East Asia:

- I. Nestorian I, (635-907). Alopen reaches China.
- II. Nestorian II & Roman Catholic I, (1200-1368). William of Rubruck, Marco Polo, Kublai Khan, John of Montecorvino.
- III. Roman Catholic II, (1552-1773). The Jesuits.
- IV. Protestant I, Roman Catholic III. (1807-1945). Robert Morrison, Hung Hsiu-Ch'uan.
- V. The Communist Revolution; Korean Independence, (1945....).

Panikkar tends to remember only the times the door closed. I would remind him that each time the door closed, Christians opened it again and kept coming back.

But when the door to China slammed shut on me personally in 1951, I came close to agreeing with Panikkar. I thought we had failed again. I had reached China just in time to see 150 years of remarkable Christian progress in Asia during the period I call "Protestant I" (1807-1949) wiped out by a communist revolution. The period began with Robert Morrison,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y to China. The owner of the ship that took him across the Pacific laughed at him: "Mr. Morrison, do you really expect that you will make an impression on the...great Chinese Empire"? And Morrison said, "No, sir, but I expect that God will." Was he wrong? Seven years later Morrison could still not report a single convert. In the first 25 years of that first Protestant China mission only ten Chinese Protestants were baptized--ten out of 300 million Chinese. About all that Morrison accomplished was to translate the Bible into Chinese.⁷ As Panikkar said, it was impossible to convert Asia.

But all God needed there at the beginning was that translation of the Bible. And twice in the next hundred and fifty years Chinese Christianity seemed on the verge of a breakthrough that

⁶ FIVE PERIODS OF ENTRY & REJECTION IN EAST ASIA

- I. Nestorian I (635-907). Alopen reaches China.
- II. Nestorian II; R. Cath. I (1200-1368). Sorkaktani
- III. Roman Catholic II (1552-1773). The Jesuits
- IV. Protestant I; R. Catholic III (1807-1949). Morrison, Hong, the CIM
- V. The Communist Revolution (1949...)

⁷ Elizabeth Morrison, Memoirs of the Life and Labours of Robert Morrison (London: 1839); 1:136, 4089 f., 212 f.

would win the whole country. The story can be told in terms of three military revolutions:

1. The Taiping Rebellion of 1850;
2. The nationalist revolution of 1912;
3. The communist revolution of 1949.

The first military revolution, the Taiping Rebellion (1850-1860), was a curious thing. In 1851 a native revolt broke out against the corrupt Ch'ing dynasty and almost toppled the Manchu emperor from his throne. What was so remarkable about it was that the leader of the rebels, Hung Hsu-Ch'uan considered himself to be a Christian, and Christians were very rare in China then. He had come across a portion of Morrison's Bible and was converted. I think he was only semi-converted, for though he was very earnest he was far from being orthodox. He was, in fact, a narrow, rigid, heretical Christian. He announced that all Chinese must worship God--good; and destroy their idols (that depends). He published his own edition of the Bible (a dangerous business). All officers in his army were required to attend Sunday worship. If they missed, they were flogged. If they missed two Sundays in a row they were executed. It was a violent, unchristian kind of discipline, but for an army, very effective.

When he captured the southern capital, Nanking, even the western powers began to take Brother Hung seriously. Would he perhaps be the Constantine for which Asia had been waiting for 1500 years - at last, a Chinese Christian emperor? One report estimated that Brother Hung had 30 million Chinese followers, all calling themselves Christians, just as he ordered. But he never became emperor. His "Christianity" turned out to be a flawed mixture of Bible truth, Chinese myth and imperial ambition. In the end the so-called Christian west sent a Christian general to an anti-Christian dynasty to put down what called itself a Christian uprising, and the Taiping Rebellion failed.⁸

Now jump forward about 60 years. Another revolution-- the Chinese revolution of 1912, which ended the old Manchu dynasty and established the Republic of China. This revolution also had strong Christian connections. Its leader was a young radical educated by Protestants, baptized in 1884. His name was Sun Yat-Sen. For a while he became an enthusiastic lay-preacher. Unlike the Taiping rebellion this nationalist revolution succeeded. The dynasty fell, and the new Republic of China elected as its first president, the young Chinese Christian, Sun Yat-Sen.⁹

⁸ On the Taiping Rebellion see, for example, the three volumes of Franz Michael, The Taiping Rebellion, (Seattle: 1966-1971).

⁹ On Sun Yat Sen's profession of Christianity and relation to the church, see Lyon Sharman, Sun Yat-sen, (New York: John Day, 1934), esp. pp. xvii, 418.

The next fifty years, says Latourette, were a time of "unprecedented open-mindedness to the Christian message and of friendliness to the messengers", the missionaries.¹⁰ For a time in the 1920s and early '30s there were 8,000 Protestant missionaries in China. The Chinese Catholic community was twice as large as the Protestants. The next president was also a Christian, a general named Chiang Kai-Shek, a Methodist. Christian colleges blossomed; interest in the Christian faith boomed, and it was said that in the "Who's Who in China" 25% of China's intellectual and political elite professed to be Christian. Would General Chiang, an acknowledged Christian ruler of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be the second Constantine? History's answer was "No".

I found that out very quickly. I reached China in 1947 and my timing could not have been worse. China was in civil war-- Chiang Kai-Shek's nationalists against Mao Tze-Tung's communists. When I asked, "Who will win?", they said, "The communists," and they were right. Within a year and a half the communists captured the university where I was teaching, and went on to take the rest of the country. In 1951 I was expelled and most of the other missionaries were gone. "When we get rid of you missionaries," the communists boasted, "the Chinese church will wither away". And when I left China I was almost discouraged enough to believe them. Maybe Panikkar was right, and Christianity was about to die in Asia. There were in 1951 about three million Christians in China--two million Roman Catholics and one million Protestants, and the executions began shortly after we were expelled.

But Panikkar was wrong. Today, after nearly forty years of the communist revolution, it is the communists who are in difficulty, and it is the Chinese Christians who are still there, growing and growing and growing. No one really knows how many Christians there are in China today. The government says about 15 million. But the more probable figure, which has to be an educated guess, is somewhere between 40 and 65 million. That is a phenomenal increase--from three million to 65 million in forty-five years is an explosion of church growth, surely the largest and fastest expansion of Christianity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But what of the future in China? There are still problems, the most pressing of which is the split between the government-recognized churches of the Protestant "Three-Self Church", and the "underground" churches of the "House Church Movement." The "Three Self Church" chose the Biblical admonition, "Let everyone be subj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Rom. 13:1); and its churches, though severely restricted, were allowed to remain open. The "House Churches" chose a different text,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any human authority" (Acts 5:29), and refused to be governed by an atheistic regime.

¹⁰ Latourett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in China, (New York, 1929), 610.

Be careful, however, before jumping to judge one of them as right and the other as wrong. The "Three Self Church" is to be commended for preserving a visible presence for Chinese Christianity through the long years of the revolution. It was right in thinking that Christians must not be afraid of social reform. But it ran a risk--too much dependence on government, and a tendency to emphasize political social action over faithfulness in worship and prayer. The other wing of the church went underground, and is now the largest and fastest growing segment of the Protestant movement, though still without government recognition. But it, too, runs a risk--the lack of an educated Christian leadership, and too little appreciation of the necessities of social reform. Valiant efforts are being made on both sides to heal that crippling division.

The Catholics split also. Their left wing developed into the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 It accepted the communists' demands that they cut all foreign ties, which meant a renunciation of the authority of Rome and the Pope. Their right wing, steadfast through persecution and imprisonment, and fiercely loyal to Rome, has virtually disappeared. But on both sides there are attempts to recover the relationship with Rome that alone would restore Chinese Catholicism's validity as a Catholic Church.

Japan: The Church That Didn't Grow.

Japan is a very different story. There is space in this article for only a few paragraphs, but it is important to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ase of Japan brings to the study of Christianity in Eastern Asia a much needed note of hard realism. Japan is a strong antidote to too much Christian triumphalism about the success of the churches' worldwide missions. One statistic will have to suffice: there were more Christians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three hundred and fifty years ago, than there are today: Japan is less than 2% Christian today; China about 6%; and Korea perhaps 30% or more.

The story of Christian mission in Japan, sandwiched as it is between two brighter stories of triumph (China and Korea), should be a reminder that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s not always a success story, at least not as the world defines success.

In the 19th century, while the Chinese empire was crumbling, the Japanese empire set out to conquer the world. In 1894 it defeated China. A Chinese army came rolling south with Mongolian cavalry straight out of the days of Genghis Khan with banners and drums. But its officers were still being chosen on the basis of their ability with the bow and arrow. The Japanese, silent and efficient, had modern guns. The great land battle of the Sino-Japanese war was fought over Pyengyang, where my father had just established residence as a missionary. And after the battle, as he rode horseback through the battlefields and counted the Chinese bodies laid out for miles, he said he felt he was watching the end of the Middle Ages--guns against armour. Less than ten years later

little Japan defeated the Russian empire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05), and when my father saw his first Russian prisoners in Japanese prisoner-of-war camps, he said he felt he was watching the end of another age, the age of the end of western domination of Asia.

So a victorious imperial Japan, unlike defeated imperial China, met the incoming wave of 20th century Christian missionaries with an air of assurance that felt no need to reexamine its own religious foundations and consider Christianity as a desirable alternative. After all, it had just soundly defeated one of the greatest Christian empires in the western world, Russia. As a result Christian missions in Japan found it difficult to win a hearing for the claims of the Christian faith.

Within thirty years with increasing arrogance, the self-confident Japanese launched their great crusade--first the conquest of East Asia, then the whole continent, and next, perhaps, the world. But to conquer the world, Japan knew it needed more than an army. It needed a faith, and what better faith than Japanese Shinto with its syncretistic ties to Japanese Buddhism. So in Korea, which they absorbed into their empire in 1905 after the defeat of Russia, they began to force Christians to adjust to Japanese Shinto shrine worship, worship of the Emperor as divine. While some in China were beginning to think they might have a Chinese Constantine in Chiang Kai-Shek, Japan already had its emperor-god, Hirohito. And Christians in Japan were expected to conform to ceremonies perilously like the ancient emperor-worship of preConstantinian Rome.

Korea: a success story, but with problems.

My last example is Korea. It is hard for Christian observers not to be triumphalist in describing South Korea. A recent visitor returned not long ago from that country almost in shock. Methodism, he said, began in England with John Wesley, but the largest Methodist congregation in the world is not in England. It is in Seoul, Korea. Presbyterianism began in Geneva with John Calvin, but the largest Presbyterian congregation in the world is not in Geneva. It is in Seoul, Korea. Pentecostalism as a modern movement began in Southern California, but the largest Pentecostal congregation in the world is not in Southern California. It is in Seoul, Korea.

You do not have to go to Korea, to sound triumphant in describing Korean Christianity. Around me in Princeton, where I live, there are signs of a significant decline of mainline American Protestantism. But place the point of a draftsman's compass in the center of Princeton and draw a circle with a 70-mile radius around this community, and you can count 700 Korean-American churches within that circle - 700 new churches which were not here 35 years ago.

In all of Asia the signs of Christian progress and expansion are multiplying. In 1900 there were only 18 million Christians on the continent. Today there are 275 million--a 15-fold

increase in 100 years, which is more than 3 times as fast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uslims in Asia in that same period.¹¹ There are more Christians in Asia than there ar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ore Presbyterians in Korea than in the United States. Korea has about 14 million Christians, of whom in 1995 more than eleven million are Protestants, and about six million of those are Presbyterians.

What happened in Korea? Whatever it was, it certainly impressed Harvey Cox,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this article. However, in his understandable surprise at the Pentecostal explosion, he missed the fact that there are five times as many Presbyterians as Pentecostals in Korea. (Cox is mistaken, also, when he labels Korean Pentecostals as "Christian shamanists").

The question still stands. What happened in Korea? The growth is obvious. Protestants grew faster than Catholics; and Presbyterians grew faster than Methodists, Pentecostals and Baptists combined. When my father went to Korea 106 years ago there were less than 250 Protestant Christians in all Korea, north and south, and only two little Protestant congregations; one Presbyterian and two Methodist. Those 250, north and south, in 1890, grew to nearly 12,000,000 Protestants in the south alone today, not counting 2½ million Catholics, and a half million "marginal sects", like the Unification Church.¹²

But what made it grow? The best answer I know was one which I often quote, given by my father sixty years ago. To an inquiring committee from America, he simply said, "For the last fifty years we lifted up to this people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pirit did the rest."¹³ Too simple, maybe, but if Christians don't begin there, they usually don't begin at all.

However, there are other important reasons why the Korean church grew. I would mention first a non-theological reason.

¹¹ In Asia since 1900 Christians increased from 18 million to more than 275 million, a factor of 15; while Muslims grew from 170 million to 688 million, a factor of only 4. In that same period Hindus increased from 200 million to 745 million, a factor of 3.6; and Buddhists from 100 million to 332 million, a factor of 3.3; (World Almanac, 1995, p. 731, and Catholic Encyclopedia, 1910). The growth of Christians far outpaced all other Asian religions.

¹² See the statistics in Patrick Johnstone, Operation World, 1993,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HarperCollins), 1993), 336 ff.

¹³ Cf. S. A. Moffett, in H. A. Rhodes, ed.,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eoul: YOCA Press, 1934), 36 ff.

Christian missions to Korea came in with no imperialist, colonial baggage. It was an Asian colonialism (Japan) which Korea resented, not the west. The American missionaries came as friends, not exploiters.

A second non-theological reason is that the Protestants came at a time when Korea's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was crumbling. Confucianism, Buddhism and Shamanism had all failed them when the country was conquered by Japan. The failure of the old traditions opened the way for them to look for hope to the new faith brought by their friends, the missionaries.

But just as important, and probably even more effective, was a third reason: the wise mission policy of those early missionaries. It is called the Nevius Method, named for an 1850 graduate of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who went to China and reacted against old methods of mission work there which, in his view, had kept the control of the Chinese church in missionary hands too long. His advice to his colleagues in China was, "Trust the Holy Spirit, and trust the converts the Spirit gives you. Let them evangelize their own country and build up a Chinese church". It was too late; the old methods were too well established. But in 1890 when he brought the same message to a meeting of pioneer missionaries in Korea, they listened, and it became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The Presbyterian mission adopted the "Nevius Method" as the official mission policy. It is no coincidence that although Catholic missions began a hundred years earlier, and Methodists at the same time as the Presbyterians, there are now twice as many Korean Presbyterians as Catholics, and five times as many Presbyterians as Methodists.

The Nevius Method, known today as the "Three-Self Method",¹⁴ was so successful in Korea that China's communists applied it to the Chinese church which they ordered to sever connections with foreign influence, borrowing the term "three-self" from the Chinese YMCA, which in turn had borrowed it from Korean Christians. The first "self" was self-government, that is, turning the church over to Korean control as soon as there is a Korean ordained ministry to lead it. That was done in 1907, the year the first class graduated from the first Korean seminary. The second "self" was self-support. That was done even earlier, in the 1890s. The mission decided not to pay the salaries of Korean pastors or build Korean churches with American dollars. Instead, in faith they entrusted the full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 stewardship to their converts. Koreans have been "tithers" ever since.

A fourth reason for growth was what could be called the Korean initiative. Mission policy called it the third "self", "self-propagation". More accurately, it was lay-evangelism, the

¹⁴ The Nevius Method also has roots in the "three-self" mission strategies advocated by Henry Venn in England and Rufus Anderson in America.

propagation of the gospel by laymen and laywomen, and it was started in Korea not by the missionaries but by a Korean layman, Suh Sang-Yoon, even before the first missionaries arrived. Suh was converted in Manchuria by Scottish missionaries in 1876 and there helped in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into Korean. He brought some copies of portions of the gospels with him back to Korea in 1893 and formed a little Christian community in his home village. It was not until the next year that the first American missionaries landed-- Horace Allen, a Presbyterian doctor, Horace Underwood a Presbyterian minister, and Henry G. Appenzeller, a Methodist minister. But Suh Sang-Yun was first.¹⁵

A fifth reason which helps to explain the rapid growth was the firm grounding of the church in the spiritual basics of the Christian faith: The disciplines of church membership were demanding: Bible study for theology, personal Christian spiritual discipline, and enthusiasm for Christian witness. Both the study and the outreach are important. Too much concern about one's spiritual temperature is dangerous. Korean Christianity from its infancy was outreaching, not narcissistic, not selfish. It was evangelistic, missionary, and socially and politically active.

Closely related is a sixth reason for growth, prayer. A distinctive feature of Korean church life is the day-break prayer meeting. It takes spiritual discipline to get up at 4 or 5 in the morning for spiritual, not physical exercise, prayer. One Presbyterian church in Seoul has two day-break prayer meetings for its congregation: the first at 4:30 to which 5,000 come; and the second, at 5:30 with another 5,000. Its pastor once said to me, "I am not a very good preacher". And when I asked, "Then why is your church growing so solidly?". he said simply, "We pray".

A seventh reason historically, was the emphasis on Bible Study. The early missionaries translated the Bible into common, vernacular Korean using the Korean alphabet so that everyone could read it. They didn't use the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taught only to sons of the elite by Confucian scholars. One of the requirements quickly established for full communicant membership in the church in those pioneer days was learning to read. How can you be a Christian if you can't read the Bible? That may explain why Korea today has a higher rate of literacy than the United State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one of the core characteristics of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was the Bible Training Class System, another seed thought dropped into the formulation of mission policy in Korea by Dr. Neivius, which was given more emphasis in Korea. It not filled the minds of laymen and lay women with the knowledge of God's Word and thus became the nursery for future officers, evangelists and pastors of the Korean Church.

¹⁵ Lak-Geon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revised ed., (Seoul: Yonsei University, 1971), 32, 54, 138 f.

And finally, revival.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was organized in the midst of revival. It was a spiritual revival, explosive and spectacular, sweeping through the peninsula from 1903 to 1907 that touched off the first massive ingatherings of church growth and permanently stamped its character with a revivalistic fervor that has been compared to the revivals of John Wesley. Though the principal benefactors from the revival turned out to be mostly Presbyterian, the revival also gave Korean Christianity an ecumenical seal of fellowship. The Koreans said to the missionaries, "Some of you go back to John Calvin, and some of you to John Wesley, but we can go back no further than 1907 when we first really knew the Lord Jesus Christ".¹⁶

But one more reason must be added. Korean Christianity did not polarize evangelism and social action. It practiced both because to Korean Christians both were gospel, good news. The early missionaries were anything but spiritually other-worldly. The first missionary, Dr. Allen, opened Korea's first modern hospital and then moved from the mission into diplomacy to become an early American Minister (ambassador). No national problem or question was considered out of bounds for Christian care and concern. The pioneers gave Korea its first schools for women, its first schools for the blind. Underwood imported kerosene and agricultural implements, and naturally a little later his brother's new product, the Underwood typewriter. Moffett opened a timber concession on the Yalu River, managed by Christian Koreans. Foreign traders objected. That wasn't missionary business, they said; it was infringing on the trader's profits. The missionaries replied, "We are not doing it for personal gain. We are teaching our converts modern techniques and business methods so they will be able to compete on a more equal footing as Western civilization sweeps in one them".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president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was a Christian, a Methodist; its present president a Presbyterian elder; and the current leader of the opposition is a Roman Catholic.

But I must not let myself be carried away with beating the success drums for Korean church growth. There is one reason for church growth of which I do not boast. It is church schism. One of the hard facts of Korean church history is that one way the Korean church grows is by splitting. There are more than 60 different Presbyterian denominations in Korea. Each has its own General Assembly and its own moderator. Where else in the world will you find a Jesus Presbyterian Church and a Christ Presbyterian Church and Jesus isn't speaking to Christ. But by the grace of God who allows even "human wrath to praise Him" (Ps. 76:10), when a Korean Presbyterian church splits, in ten years each half seems to grow to be as large as the whole was before the split occurred. It is perhaps significant that all the schisms have occurred after the ravages and social disruption of the Korea War (1950-53).

¹⁶ Samuel Hugh Moffett, Christians of Korea, 53 f.

In conclusion, Christianity did not fail in Asia. It never will. The Christian historian writes with the assurance that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But that promise is made about the Church of Jesus Christ. Church history teaches us all too well that Christian congregations and even national churches are not infallible. At various times and in various ways they do indeed fail; some have disappeared. Permit me therefore to suggest a few lessons drawn from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Asia. I must preface the list with a preliminary generalization: namely, that the future of Christianit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largely shaped by the rise of the third world churches. Much of that future will be shaped by how well they have learned from their own history these seven lessons:

1. They will fail when they depend too long on political power, whether national or foreign.
2. They will fail when they do not appreciate and identify with their own national cultural heritage; but also if they lack the courage to bear a counter-cultural Christian witness when necessary within that heritage.
3. They will fail if they are unable to produce an educated leadership for the church and the nation.
4. They will fail if they do not validate their spiritual message with social compassion and integrity.
5. They will also fail, however, if they concentrate on social programs to the neglect of the personal and corporate disciplines of the Christian life.
6. They will fail if they falter in their enthusiasm for evangelism -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7. And finally, they will fail most tragically if they abandon their theological foundations: one God in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 Salvation b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lone; and the definitive authority of the Scriptures for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Samuel Hugh Moffett
Princeton, NJ, 1996

s. moffett. CHO2'95. Asia

OUTLINE AND STATISTICS

I. Three revolutions in Asia. (2 expectations & a reassessment)

II. <u>Four Asias</u> : North (former USSR). pop.	296,000,000
West (Asian Middle East)	219,000,000
South Asia	1,461,000,000
East Asia (China, Korea, Japan..)	1,366,000,000

III. Five World Religions (total membership)

Christians	1,905,000,000	(33.6 % of world pop.)
Islam	1,004,000,000	(12%)
Non-religious	930,000,000	(16.3%)
Hindus	770,000,000	(8%)
Buddhists	340,000,000	(6%)
Atheists	245,000,000	(5.6%)
New religionists	125,000,000	(2%)
Tribal religions	99,000,000	(1.8%)

IV. World Christians (total, 1,905,300,000)

Roman Catholic	1,034,300,000
Protestant	572,000,000
Orthodox	187,000,000

V. Christians by Continent (total claimed members).

Latin America	89%	Christian	(440 m. out of 492 m.)
North America	78%	"	(230 m. " 289 m.)
Europe (+USSR)	66%	"	(530 m. " 800 m.)
Africa	48%	"	(341 m. " 700 m.)
ASIA (incl. W.Asia)	7%	"	(252 m. " 3,588 m.)

(adapted, IBMR Jan. 1995; World Almanac, 1995)

VI. CHRONOLOGY FOR EAST ASIA CHURCH HISTORY

1. Nestorian I (635-907), T'ang dynasty; Alopen
2. Nestorian II; R. Catholic II (1200-1368). Sorkaktani, John of Montecorvino, Marco Polo.
3. Roman Catholic II (1552-1773). Xavier, Ricci, the Jesuits, the Rites Controversy.

4. Protestant I; R. Catholic III (1807-1949). Morrison; the Taiping Rebellion; the China Inland Mission; the Chinese Republic.
5. The Communist Revolution (1949--). Three-Self Church; House Churches;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

CHURCH STATISTICS, EAST ASIA: KOREA, CHINA, JAPAN

KOREA, South (33% Christian; est. vary 20% to 43%); pop. 45 m.

	<u>churches</u>	<u>members</u>	<u>affiliated*</u>
Protestant (27%)	37,985	5,080,000	11,805,000
Roman Cath. (6%)	2,950	1,336,000	2,423,000
Marginal (0.6%)	<u>3,150</u>	<u>183,000</u>	<u>594,000</u>
Total	44,085	6,600,000	14,822,000

CHINA (6% Christian; est. vary 2% to 6%); pop. 1,214 m.

Protestant (5.1%)		25,000,000	58,000,000
Roman Cath. (0.8%)		6,000,000	9,000,000
Marginal (0.2)		<u>1,000,000</u>	<u>2,000,000</u>
Total		32,000,000	70,000,000

JAPAN (2% Christian; est. 1.5% to 2.5%); population 126.3 m.

Protestant (1.1%)	6,587	391,000	649,000
Roman Cath. (0.3%)	950	290,000	414,000
Marginal (0.7%)	<u>4,100</u>	<u>605,000</u>	<u>870,000</u>
Total	11,717	1,286,000	1,933,000

TAIWAN (5% Christian); population 21.5 m.

Protestant (3.1%)	2,794	280,000	608,000
Roman Cath. (1.6%)	782	169,000	307,000
Marginal (0.3%)	<u>380</u>	<u>52,000</u>	<u>81,000</u>
Total	3,956	501,000	1,196,000

HONG KONG (14% Christian); population 6.15 m.

Protestant (8.5%)	995	272,000	495,000
Roman Cath. (4.8%)	47	165,000	280,000
Marginal (0.8%)	<u>66</u>	<u>24,000</u>	<u>45,000</u>
Total	1,108	461,000	820,000

Korea, North (0.7%)??; population 26 m.

Protestant (0.4%) ?	2	12,000	80,000 ?
Roman Cath. (0.2%) ?	1		40,000 ?

* "Affiliated" = total claiming to be Christians, including adherents whether baptized and communicant or not. Statistics from Operation

